

# 애니 베어드(Annie L. A. Baird, 1864-1916)의 선교사역과 음악

김 사 랑

1. 들어가며
2. 한국의 초기 선교와 애니 베어드
  - 1) 언어를 통해 한국문화를 깊이 이해하다
  - 2) 한글 교재를 통해 학생들을 만나다
3. 한국의 초기 음악교육과 애니 베어드
  - 1) 한국인의 정서에 다가간 찬송가 가사
  - 2) 한국의 연행관습을 고려한 『창가집』 편찬
4. 애니 베어드의 음악활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5. 나가며

## 개 요

애니 베어드는 한국 선교 초기인 1891-1916년까지 사역했던 미북장로교 파송 선교사로, 교육 사업과 다양한 출판 활동으로 한국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를 남긴 선교사로 평가받고 있다. 음악분야에 있어서도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 뛰어난 언어적 음악적 재능을 바탕으로 다수의 찬송가를 번역하고 편찬하는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일반 노래집인 『창가집』을 편집·출판하여 음악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창가집』은 한국인의 가창 특징을 고려한 편집과 다양한 장르의 선곡으로 당시의 근대음악교육의 단면을 보여주는 의미를 가진다.

애니 베어드는 한국에 들어온지 6년만인 1897년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초급 교재인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50가지 도움들』(Fifty Helps for the Beginner in the Use of the Korean Language)를 발간하여 선교사들의 한글 교육에 힘을 썼다. 또한 빼어난 한글 실력으로 『셋별전』, 『장자로인전』, 『고영규전』 등의 한글 소설을 썼고, 『한국의 새벽』(Daybreak in Korea)과 같은 영어 소설 등 다수의 저작을 남겼다. 그녀의 저술들은 남아선호사상, 여성의 차별대우 문제 등 한국여성들의 실상을 드러내는 내용을 다루면서 현세적 복을 강조하는 무속 신앙, 조상 숭배와 풍수지리 사상, 조혼 풍습 등 다양한 당시의 한국문화들을 매우 세심하게 묘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글 교재를 번역 및 편찬하여 다수의 한국학생들이 모국어로 근대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그녀의 활약을 토대로 볼 때, 언어의 능숙함과 한국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적인 정서를 담은 섬세한 번역과 한국인들의 연행방식을 고려한 선곡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보수적인 신앙인으로서 당시의 선교부의 선교 방침과 세계 선교 흐름에 따라 ‘계몽’을 위한 서구적인 교육 시스템을 한국에 뿌리내리고 교회의 리더들을 양성하기 위해 서구식 음악교육을 지향했던 애니 베어드지만, 한국적인 정서를 고려했던 번역과 한국인의 음악언어를 이해한 선곡은, 한국인들과 근거리에서 다양하게 소통하려 했던 태도와 한국의 가치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려 했던 문화적 감수성을 보여준다.

주제어: 애니 베어드, 안애리, 선교사, 근대음악교육, 토착화, 찬송가, 창가집, 문화적 감수성, 한국문화 이해,

## 1. 들어가며



(그림 1) 애니 베어드(안애리)

한국의 19-20세기 초는 다양한 문화의 혼종과 변형이 다이내믹하게 나타난 시기로 당시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은 최근 20년간 학계의 중요한 과제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 여성에 대한 개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는 거대 담론으로 포획되지 않는 한 개인의 여러 관점과 생각들의 충돌과 불연속성이 역사를 보다 입체적으로 구성하도록 해준다. 또 하나는 그간의 역사서술이 여성들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 여성의 삶과 역할을

조망하는 것은 역사를 균형 잡힌 시선으로 보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이런 면에서, 한국의 초기 선교역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이자, 음악사적으로 의미 있는 『창가집』의 편찬자이며 수많은 찬송가의 번역자로 활약했던 애니 베어드(Annie Laurie Adams Baird, 1864-1916)를 탐구하는 것은 초기 음악교육의 단면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텍스트가 된다.

최근의 선교사 연구는 제국주의의 공모자라는 식민주의 패러다임을 넘어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추적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나 로버트(Dana Robert)<sup>1)</sup>나 최혜월<sup>2)</sup> 등은 여성선교사를 제국주의의 대리자가

1) Dana Robert, *American Women in Mission: A Social History of Their Thought and Practice* (Bacon: Mercer UP, 1996); *Gospel Bearers, Gender Barriers* (New York: Orbis Books, 2002); *Christian Mission: How Christianity Became a World Religion* (West Sussex: Wiley-Blackwell, 2009).

2) Choi Heweol, *Gender and Mission Encounters in Korea: New Women, Old Way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9).

아닌 현지인과 공존하며 상호작용하는 행위자(agency)로 상정하여 폭넓고 다각적인 평가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여성선교사들의 다양한 활동을 다층적으로 접근하고자 했던 이러한 관점은 한 인물 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고방식들이 충돌하고 변형되는 이른바 대화의 과정이 삶의 선택을 매개해 드러난다는 제임스 워치(James V. Wertsch)의 논의와 맞닿아 있다.<sup>3)</sup> 이러한 논의들을 토대로 하여 본 논문은 애니 베어드를 “사회·문화적으로 생산된 존재일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반성하여 자신을 변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이해”<sup>4)</sup>하고자 한다. 우선, 애니 베어드가 26년간 한국에서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1차 자료를 토대로 추적하고, 그녀가 선교활동의 일환으로 편찬한 다수의 저서와 글에 나타난 생각과 태도가 어떻게 음악활동에 매개되어 나타나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다.

## 2. 한국의 초기 선교와 애니 베어드

‘안애리’(安愛理)라는 한국어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애니 베어드는 1864년 미국 인디애나(Indiana)주에서 태어나 부유한 농장주이자 독실한 기독교인인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 그녀는 부모의 교육열 덕에 당시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대학에서 L.L.L.(Lady of Liberal Learning) 학위를 받은 엘리트였다.<sup>5)</sup> 선교부 허입서류에 따르면, 그녀는 웨스턴 여자대학(Western College for Women, 1882-83), 하노버 대학(Hanover College, 1883-84)에서 수학하였고,

3) 제임스 워치 / 박동섭 옮김, 『보이스 오브 마인드: 매개된 행위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 (서울: 학이시습, 2014).

4) 강선미, “조선 파견 여성선교사와 (기독교)여성의 여성주의 의식형성,”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03), 42.

5) 리처드 베어드 / 김인수 옮김, 『배위량 선교사의 한국선교』 (서울: 쿤란출판사, 2004), 22.

워시번 대학(Washburn College, 1884-85)에서 학업을 마쳐 학위를 받았다. 이후 통신 교육(correspondence school)을 통해 불문학과 영문학 등을 공부하기도 하였다.<sup>6)</sup> 특히 통신 교육 과정은 그녀의 문학에 대한 열의를 보여주는데, 다수의 저서를 남긴 그녀의 이력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같은 그녀의 학력과 재능은 교육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하노버 대학에서 수학하던 중에 윌리엄 베어드(William M. Baird, 1862-1931)를 알게 된 애니 베어드는 졸업 이후 다양한 기독교 단체에서 활동하다 그와 함께 선교사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게 된다. 이후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부의 조선 선교사로 임명된 베어드 부부는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1859-1916) 선교사의 형인 존 언더우드(John Underwood)의 재정후원에 힘입어 1890년 결혼과 동시에 아시아행 배에 올랐다.<sup>7)</sup>

1891년 부산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애니 베어드는 부산, 대구, 평양 등을 중심으로 26년간 선교사역에 참여하였다. 박보경에 의하면, 애니 베어드의 한국 사역기를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8)</sup> 우선 부산 및 대구 개척기인 1891-1897년까지는 주로 출산과 양육을 하면서 한국어를 익히고 이웃들과 교제하는데 주력했던 시기이다. 뛰어난 한국어 습득 능력을 바탕으로, 이 시기에 찬송가를 번역하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기초 교재를 편찬하기도 하였다. 본격적으로 교육사역에 뛰어들었던 시기는 평양 사역기인 1897-1916년까지로, 숭실학교를 세운 남편 윌리엄 베어드를 도와 각종 교재를 번역 및 편찬하고 여러 여성학교 및 외국인 학교를 운영함과 동시에 찬송가 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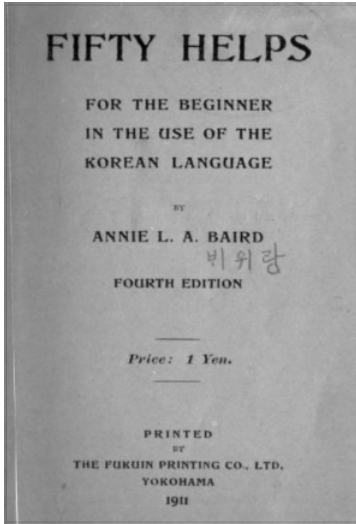
6) 미국장로교 아카이브인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에서 수집한 그녀의 이력서에 명시된 내용이다. “Information about Annie Baird copied from the book of data for Korea Mission History,” (1916), 2.

7) 리차드 베어드 / 김인수 옮김, 『배위량 선교사의 한국선교』, 24.

8) 박보경, “애니 베어드의 삶과 선교 사역에 대한 고찰,” 『장신논단』 49/4 (2017), 283-306.

1) 언어를 통해 한국문화를 깊이 이해하다

애니 베어드의 주요 활동 가운데 한국어 교육과 소설 등의 문학 작품



활동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그의 한국어 능력이 매우 출중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우선, 1897년에 초보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인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50가지 도움들』(Fifty Helps for the Beginner in the Use of the Korean Language)<sup>9)</sup>을 출간했는데, 애니 베어드가 1891년 1월에 입국을 했으니 6년 만에 이룬 성과이다. [그림 2]는 1911년에 발간된 제4판으로 현재까지 제6판(1926)까지 확인되고 있다. 이 교재는 이전에 언더우드에 의해 제작된 문법서와는 달리 학습자가 실제 문형을 반복하여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실용적인 교재로 평가되

(그림 2)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50가지 도움들』 (Fifty Helps) 표지

었으며 해방 전까지 50여 년간 한국어 기초 교재로 널리 사용되었다.<sup>10)</sup> 애니 베어드는 교재를 출판했을 뿐 아니라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 과정을 운영하기도 하였다.<sup>11)</sup> 평양에서 개설된 언어 과정은 교단 상관없이 여러 초임 선교사들의 한국 정착에 중요한 발판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애니

9) Annie L. A. Baird, *Fifty helps: for the beginner in the use of the Korean language*. (Yokohama: Fukuin Printing), 1911.

10) 고예진, “애니 베어드(Annie Luaurie Baird)의 저서에 나타난 한국문화 이해양상 고찰,” 『인문과학연구논총』 33 (2012), 16-18.

11) Annie L. A. Baird, “Are We Satisfied?” *The Korea Mission Field*, 8/5 (1912), 130-133; “Schedule and Notice of Language Class,” *The Korea Mission Field* 9/3 (1913), 55.

베어드의 한국어에 대한 깊은 이해는 찬송가 번역에 대한 그녀의 글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영어 노래나 찬송가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이들은 당연히 그들이 번역한 노랫말이 오랫동안 쓰이길 원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노랫말이 율격을 가져야 하며, 노랫말의 율격과 곡조에 쓰인 것이 똑같아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다. 리듬과 관련하여 한국어에 대해 연구한 결과 강약조(trochaic)나 액센트가 있는 음절로 시작되는 운율이, 액센트 없는 음절로 시작하는 약강조(iambic)나 이와 비슷한 운율보다 매우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한국인들은 대체로 8음절 강약조로 시를 쓴다. [중략] 이것은 영문 시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 율격이 아니다.<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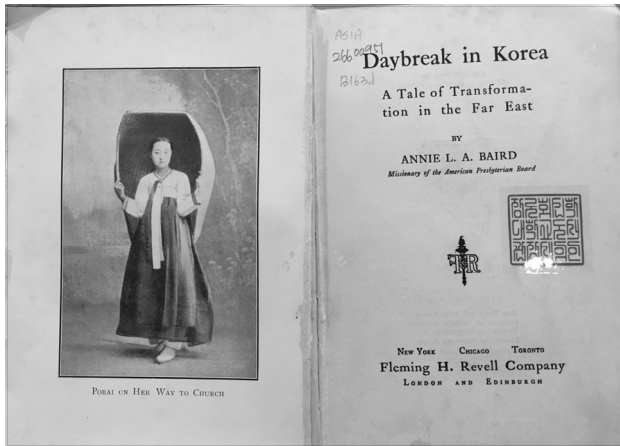
둘째, 다양한 저서활동을 펼쳐 글로써 한국의 상황을 국내외에 알리기도 했다. 상당한 수준의 한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셋별전』, 『장자로인전』, 『고영규전』과 같은 한글 소설을 출간하기도 했고, 『한국의 새벽』(Daybreak in Korea)<sup>13)</sup> 등은 뉴욕에서 영어로 출간하여 한국에 대해 소개하는 역할을 하였다. 애니 베어드의 글은 일반인들의 생활상, 종교, 나이 및 성별에 따른 상하관계, 계급, 결혼, 경제생활 등 한국 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매우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녀의 생각을 담지한 매개로 역할한다. 특히 모든 소설이 한국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거나 타자로 살아가는 여성을 둘러싼 가족 이야기 담고 있어 ‘한국 여성의 삶’에 대한 애니 베어드의 깊은 관심을 읽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새벽』(Daybreak in Korea)은

12) Annie L. A. Baird, “The Coming Song Book,” *The Korea Mission Field* 10/3 (1914), 80.

13) 원제는 ‘Daybreak in Korea: A tale of transformation in the far East’로, 애니 베어드가 1909년 뉴욕에서 영어로 출간한 책이다. 이후, 이 책이 한국어로 출판되었는데, 1981년에 『먼통이 틀 무렵』으로, 1994년 『어둠을 헤치고』, 2006년 『따라 따라 예수 따라가네』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다.

하층민 여성인 주인공 ‘보배’가 12살에 민며느리로 팔려가 겪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기독교인이 되어 자신의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하층민 여성들의 실상을 매우 상세하게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들의 삶에 대한 그녀의 깊은 관심과 한국인과의 상당히 밀착된 근거리 경험을 보여준다. 이를 뒷받침하듯, 이 소설의 서문을 통해 애니 베어드는 “선교사들이 매일 접하는 실제 이야기들의 재배열과 편집”<sup>14)</sup>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림 2) 『한국의 새벽』(Daybreak in Korea) 속표지



여성문제에 대한 그녀의 관심은 선교사 보고문서인 『코리아미션필드』(The Korean Mission Field)<sup>15)</sup>에서도 드러난다. 애니 베어드는 1912년 4월호

14) Annie L. A. Baird, *Daybreak in Korea: A Tale of Transformation in the Far East*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09), 5.

15) 원제는 ‘The Korea Mission Field’로, 한국에서 활동하였던 외국인 선교사들이 1905년부터 1940년까지 초교파적으로 선교현장의 정보를 교환할 목적으로 발행했던 영문 월간지이다.

에 발표된 글을 통해 한국 여성들이 비이성적인 차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세계관의 기독교적인 변화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sup>16)</sup> 애니 베어드가 평양 숭실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뿐 아니라 숭의여학교에서 초기 교장과 이사로 활약했던 것도, 여성성경학교 운영에 큰 애정을 갖고 있었던 것도 이러한 여성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17)</sup> 특히 소설을 통해 드러난, 한 여성의 해방과 주체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공동체 전체의 변화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애니 베어드의 시선은 단순히 외부자인 선교사들의 개입으로 인한 변화, 혹은 여성의 해방이 가부장적인 기존의 질서를 공고히 하는 과정으로 미끄러질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애니 베어드의 여성에 대한 이해는 당시의 남성선교사들과 달리 여성중심적인 시각, 특히 한국여성의 시선에 근접해 있었음을 보여준다.<sup>18)</sup> 그러한 점에서 한국여성 인권에 대한 애니 베어드의 시선은 급진적이지 않으나 여성의 주체성에 대해 진정성 있는 성찰을 드러낸다.

## 2) 한글 교재를 통해 학생들을 만나다

애니 베어드는 남편 윌리엄이 평양으로 부임하여 학교사역을 시작했던 1897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육 사업에 발을 들인다. 가장 눈에 띄는 일은 다양한 학교 교재를 번역 및 출판한 것이다. 『동물학』(1906), 식물학 교재

16) Annie L. A. Baird, "Higher Education of Women in Korea," *The Korea Mission Field* 8/4 (1912), 113-115.

17) 안나 홉킨스(Anna L. Hopkins)는 애니 베어드의 죽음을 추모하는 글에서 그녀를 '한국 여성들의 친구이자 조인자'였다고 기록하였다. Anna L. Hopkins, *Memorial, Mrs. William M. Baird* (Saint Louis: Woman's Presbyterian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Southwest, n.d.), 4.

18) 이현주, "보배와 이화: 애니 베어드의 『한국의 새벽』과 윌리엄 노블의 『이화: 한국 이야기』에 나타난 두 여주인공 비교," 『신학과세계』 62 (2008), 499-502.

인 『식물도설』(1908), 유럽 및 미국 건국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역사 교재 『만국통감』(1911-15), 『생리학』, 『물리학』 등 한글 교재를 발간하고 송실과 송의 등에서 직접 교사로 활동했다. 뒤에서 언급할 노래집 『창가집』 또한 교재 발간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그림 4) 애니 베어드가 번역 및 편찬한 교과서들



애니 베어드의 한글 교재 작업은 언어적 재능뿐 아니라 한국인들의 교육 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는 판단과 한글이 가진 우수성의 인식에서 기인하였다. 당시 한글은 언문이라 불리며 낮은 계층의 언어로 간주되었다. 사회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초기 선교사들은 오히려 그 습득의 용이성과 모든 계층이 사용할 수 있는 활용도에 주목하였고, 결과적으로 모든 성경과 찬송이 한글로 출판되었다. 애니 베어드는 효율적인 선교 목적을 넘어 특히 모든 텍스트의 한글화를 역설하기도 했다. “한자가 한국인들의 빠르고 쉬운 지성적 이해를 저해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단순하고, 빠르고, 가장 효율적인” 대중 교육을 위해 모든 텍스트를 한글화하는 것이 선교사의 중요한 투쟁(struggle) 영역이라고 보았다.<sup>19)</sup> 특히 이러한 주장을 양주삼 등 한국인 스스로의 인식, 즉 내부자의 관점을 근거로 내세운다는 점이 눈에

떨다. 외부자인 선교사의 의견일 뿐 아니라 내부자의 시선임을 강조해 현지어 교육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다. 더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효율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는 한자보다 익히기 쉬운 고유의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는 그의 생각은 평양 선교부의 교육 방침에 그대로 적용되었고 애니 베어드에 의한 다양한 교재의 번역으로 이어졌다.

위와 같이 한국어 교재를 비롯한 다양한 저술과 교재의 편찬 활동은 문서사역과 교육사역, 여성사역을 포괄하는 애니 베어드의 폭넓은 사역적 범위와 영향력을 가늠하게 한다. 그의 주요 저서의 목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애니 베어드의 주요 저서 목록

구분	책 제목	출판년도 (초판)
한글 교재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50가지 도움들』(Fifty Helps for the Beginner in the Use of the Korean Language)	1897
한글 소설	『장자로인론』	1906
교재	『동물학』	1906
교재	『식물도설』	1908
영문 소설	『한국의 새벽』(Daybreak in Korea: A tale of Transformation in the Far East)	1909
한글 소설	『고영규전』	1911
영문	『선교생활 내부의 모습들』(Inside Views of Mission)	1913
교재	『만국통감』	1911-1915
교재	『창가집』	1915

19) Annie L. A. Baird, "The Future of *Unmoon*," *The Korea Mission Field* 6/8 (1910), 204-206.

### 3. 한국의 초기 음악교육과 애니 베어드

애니 베어드는 한국 양악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는 인물이다. 그녀는 뛰어난 한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찬송가를 번역 및 작사하였고, 오랫동안 교회와 유치원, 학교 등에서 음악 교재로 사용되었던 『창가집』(1915)을 편집, 발행하였다. 특히 『창가집』은 근대 초기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양악 교육의 면모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에 속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능통한 한국어 실력을 통해 한국인들의 문화를 근거리에서 이해할 수 있었던 애니 베어드는, 한국인들의 정서를 이해하는 가사로 찬송가 번역을 보여주었고 한국식 연행방식을 고려한 노래들 위주로 『창가집』을 구성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한국인의 정서에 다가간 찬송가 가사

애니 베어드는 선교 초기부터 여러 찬송가를 번역하기 시작하였는데, 번역 실력을 인정받아 1898년 미북장로회 선교부 출판 찬송가인 『찬성시』(1898, 1902)와 장로회와 감리회의 연합찬송가인 『찬송가』(1908)의 편집 위원으로 활약하였다.<sup>20)</sup> 이들 찬송가에 애니 베어드가 번역 및 작사한 곡들은 약 56편이 수록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조속자는 애니 베어드의 번역 및 창작곡을 58편으로 보았으나, 필자가 필라델피아 장로회 선교 아카이브의 자료에 따르면 창작곡 4곡, 번역곡 52곡 등 총 56편이다.<sup>21)</sup> 이 문서는 애니 베어드 사후 발간된 선교부 보고서로 정확한 곡목은 명시되어 있지

20) "Literary Work," *Annual Report Pyeng Yang Korea Mission for the Year 1897-1898*; Annie L Baird, "Literary Work."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U.S.A.: Report of the Pyeng Yang Station 1902-1903*. 문옥배, 『한국 교회음악 수용사』 (서울: 예술출판사, 2004), 427에서 재인용.

21) "Information about Annie Baird copied from the book of data for Korea Mission History," (1916), 3.

않으나 애니 베어드 선교 결과를 총망라한 문서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필자는 이 문서를 기초로 애니 베어드의 번역·창작 찬송가를 56편으로 보고자 한다.

[표 2] 애니 베어드의 창작 찬송가 가사

<p><b>찬미가 (1895)</b></p>	<p>제41장 멀리멀니갔더니</p> <p>(1절) 멀리멀니갔더니 처량하고곤하며 슬프고또외로와 덩쳐업시든니니 (후렴) 예수예수내주여 곳갓가히오셔서 쉬찌나지맏시고 부형긋치웁쇼셔</p>	<p>제62장 예수인도호쇼셔</p> <p>(1절) 예수인도호쇼셔 어둡고길모르니 어디가야도홀지 나를인도호쇼셔 어디가야도홀지 나를인도호쇼셔 (2절) ㄹ러쳐주옵쇼셔 아무것도모르고 미련하고둔하니 ㄹ러쳐주옵쇼셔 미련하고둔하니 ㄹ러쳐주옵쇼셔</p>
<p><b>21세기 찬송가 (2010)</b></p>	<p>제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p> <p>(1절) 멀리멀리갔더니 처량하고곤하며 슬프고또외로워 정처없이다니니 (후렴) 예수예수내주여 지금내게오셔서 떠나가지마시고 길이함께하소서</p>	<p>제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p> <p>(1절) 나는갈길모르니 주여인도하소서 아무것도모르니 나를가르치소서 어디가야좋은지 나를인도하소서 (2절) 아무것도모르니 나를가르치소서 어찌해야좋은지 나를가르치소서 어찌해야좋은지 나를가르치소서</p>

애니 베어드의 창작 찬송가로 알려진 위 [표 2]의 두 곡 <멀리 멀리 갔더니>와 <나는 갈 길 모르니>는 1895년에 발간된 찬미가에 수록된 것으로 보아 1894년 경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때는 첫째 아이 낸시 로즈를 얻은 지 1년 만에 잃게 된 즈음이다. 이를 반영하듯, 곡의 내용을 살펴보면 길을 잃은 한 인간의 고뇌가 드러난다.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위협적인 정세와 힘을 잃어가는 왕실로 인해 혼란스런 조선 민중들의 마음과 겹치는 듯하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는지 당시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곡으로 애창되던 이 곡은 현재도 당시의 가사 그대로 불리며 많은 교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표 3] 〈예수 사랑하심은〉 애니 베어드와 언더우드 번역 가사 비교

	<b>애니 베어드 버전</b> (찬송가 1909)  예수 사랑하심은 기록하신 말씀에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권세 만토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b>언더우드 버전</b> (찬양가 1894)  예수 나를 사랑하오 성경에 말씀일세 어린으희 임차요 예수가 피로 샅네 예수 날 사랑하오 예수 날 사랑하오 예수 날 사랑하오 성경 말씀일세
<b>21세기 찬송가 (2006)</b>	<b>제563장 예수사랑하심은</b>  예수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표 3]에서 제시한 두 버전의 가사를 비교해 보면, 현재에도 <예수 사랑하심은>이란 찬송곡이 애니 베어드 버전의 가사 대로 그 번역의 결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원곡의 의미를 모두 담아내려 하기보다는 찬송의 영성(spirit)을 전달하려”<sup>22)</sup> 음악과 가사를 맞추고 이해하거나 부르는데 용이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찬송가 편찬 위원이었던 선교사 밀러(F. S. Miller, 1866-1937)는 애니 베어드의 번역이 “전례 없이 한국인의 음악적 정서에 적중”하였다고 기록하면서, 그 이유를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일상 언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글을 모르는 할머니들도 알아듣고 눈물을 흘릴 만큼 호소력이 있다고 보았다.<sup>23)</sup> 애니 베어드의 번역곡이 가진 영향력을 목격한 다수의 선교사들은 애니 베어드의 번역본을 모방하기도 했다.<sup>24)</sup> 그녀의 번역 가사가 가진 결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

22)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 *The Fiftie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Seoul: YMCA Press, 1934), 75.

23) F. S. Miller, “Early Korean Hymnology,” *The Korea Mission Field* 26/9 (1930), 190.

며, 현행 찬송가인 『21세기 찬송가』(2006)에 수록된 애니 베어드의 찬송은 창작곡인 <멀리 멀리 갔더니>, <나는 갈 길 모르니> 등 2곡을 포함해 모두 29곡에 이른다.

〔표 4〕 『21세기 찬송가』(2006)에 수록된 애니 베어드의 번역 및 창작 찬송

	장	제목	최초 수록 찬송가
1	5	이 천지간 만물들아	찬성시 1898
2	31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찬성시 1898
3	44	지난 이레 동안에	찬성시 1898
4	54	주여 복을 비옵나니	찬성시 1905
5	80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성시 1905
6	108	그 어린 주 예수	찬성시 1905
7	119	옛날 임금 다윗성에	찬성시 1898
8	143	웬말인가 날 위하여	찬성시 1898
9	160	무덤에 머물러	찬성시 1905
10	276	아버지여 이 죄인을	찬성시 1898
11	340	어지러운 세상 중에	찬성시 1905
12	351	믿는 사람들은 군병	찬성시 1905
13	362	주여 복을 주시기를	찬성시 1905
14	375	나는 갈길 모르니	찬미가 1895
15	376	나그네와 같은 내가	찬성시 1898
16	387	멀리 멀리 갔더니	찬미가 1895
17	388	비바람이 칠 때와	찬성시 1898
18	426	날 위하여 날 위하여	찬성시 1898
19	440	어디든지 예수 나를	찬미가 1895
20	454	주와 같이 되기를	찬성시 1905

24) F. S. Miller, “Early Korean Hymnology,” 190.

	장	제목	최초 수록 찬송가
21	496	새벽부터 우리	찬성시 1905
22	501	주의 십자가 있는데	찬성시 1898
23	512	천성 길을 버리고	찬성시 1898
24	520	듣는 사람마다	찬성시 1905
25	525	돌아와 돌아와	찬성시 1898
26	544	울어도 못하네	찬성시 1898
27	563	예수 사랑하심은	찬성시 1898
28	564	예수께서 오실 때에	찬성시 1898
29	565	예수께로 가면	찬성시 1905

## 2) 한국의 연행관습을 고려한 『창가집』 편찬

1915년에 발간된 음악 교재 『창가집』은 선교사에 의해 만들어진 최초의 일반 노래집이다. 애니 베어드는 이 책의 편집 및 발간인으로 교재 편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책의 머리말에는 교회와 유치원, 학교 등의 음악 교재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책을 엮었음을 밝히고 있어, 선교사들에 의한 본격적인 음악교과서임을 알 수 있다. [그림 6]과 같이 주로 4성부 오선보의 형태로 만들어진 이 악보집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46곡이 수록된 일반 창가 부분(Part I)과 19곡의 새로운 찬송가가 수록된 찬양가 부분(Part II)이 모두 16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창가 부분은 자연을 노래하는 곡, 학교생활과 관련된 곡, 기독교 윤리를 담은 교훈적 노래들과 교가 등을 담고 있어 교육적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수록곡의 원곡을 살펴보면, 영미권의 전래동요(nursery rhymes)와 민요, 흑인 영가, 찬송가 등이 다수 활용되었으며 이와 함께 한국민요, 불교음악, 중국음악, 일본군가 등의 선율이 차용되었다. 또한 선교사들에 의해 새로 작·편곡된 노래들도 포함되어 매우 다양한 구성을 보인다. 악보와 함께, 최자경(崔자京)이라는

한국인이 그린 50여 장의 삽화가 포함되어 가사의 이해를 돕는 동시에 당시 한국 학생들의 삶을 둘러싼 다양한 풍경을 엿볼 수 있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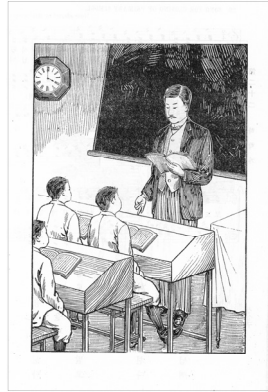
(그림 5) 『찬가집』 표지



(그림 6) 악보 예시



(그림 7) 삽화 예시



이 음악 교재는 장로교 선교사인 애니 베어드와 감리교 선교사 그로브(Paul L. Grove), 베커(Louise Ann S. Becker)가 공동으로 작업한 결과물이라는 점, 평양과 서울에서 동시에 발행되었다는 점, 1920년에 재판본이 발행되었다는 점에서 주요 선교부를 중심으로 다수의 교회와 학교에서 널리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흥미로운 지점은 이 노래책이 1908년에 출판된 『찬송가』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이다. 『찬송가』는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 연합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1905년 여러 선교부의 경쟁적 선교를 지양하고 협력을 지향했던 기구 “재한 복음주의 선교부 연합 공의회”(The General Council of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의 중요한 사업 가운데 하나였다. 애니 베어드는 이 찬송가편찬위원으로 활약한 바 있다. 그러나 『찬송가』 출판 이후 몇몇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의 연행방식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최고의 곡들이 수록된 높은 수준의 찬송가일지 몰라도, 한국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실패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하였다.<sup>25)</sup> 『창가집』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한국인들에게 익숙하거나 부르기 쉬운 곡을 위주로 선곡하는 새로운 시도를 보인다. 그 결과 『코리아미션필드』에 수록된 『창가집』에 대한 서평은 이 책이 “한국 노래를 수록한 유일한 악보집”으로 “상당수의 곡이 5음 음계로 되어 있다.”고 소개하며, “서구적 선율을 고집하지 않은 한국인들을 위한 시도”였다고 평가하였다.<sup>26)</sup> 그 구체적인 방법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애니 베어드가 수록곡을 수집하는 과정에 주목해 볼 만하다. 애니 베어드는 『창가집』이 발간되기 2년 전인 1913년 4월 『코리아미션필드』를 통해 새로운 노래집 편찬을 위한 악곡 수집을 공지하였다. 즉 당시 언론을 통해 이미 한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곡의 선율을 사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악곡 수집의 과정 때문에 대부분의 곡들은 출처가 분명하게 명시되지 못했다.<sup>27)</sup> 이를 반영하듯 1부 창가편에 수록된 46곡 가운데 20여 곡은 이미 서양식 음악어법에 기초해 작곡되어 한국에서 유행되었던 곡이다. 특히 군가를 비롯해 일본에서 작곡된 곡들이 채택되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신구약성서목록찬송>(Books of the Bible)의 원곡은 일본곡 <철도창가>(鐵道唱歌)의 선율이며, <아이 재우는 노래>는 일본 『소학창가집』(小學唱歌集, 1881) 13번째 곡 <둘러보거든>(見わたせば)의 선율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노래다.<sup>28)</sup> 두 노래 모두 20세기 초 서로 다른 가사를 가진 다양한 버전으로 한반도 전역에서 널리 불렸다. 예를 들어 <철도창가>의 경우, 1910년 발행된 『보통교육창가집』의 <학도가><sup>29)</sup>, <예수의 열 두 제

25) Paul L. Grove, “Adequate Song-Books,” *The Korea Mission Field* 11/4 (1915), 111.

26) BOOK REVIEW, Book of Songs for Social and Occasions,” *The Korea Mission Field* 11/4 (1915), 119.

27) 安愛理, 『창가집』(京城: 平壤: 耶蘇教書館, 1915), 서문.

28) 민경찬, 『한국창가의 색인과 해제』(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1997), 69.

자> 등으로도 불렸으며 음반으로도 제작되어 보급되기도 하였다. 한국인들이 친숙하게 느끼는 유행곡 선율의 채택은 애니 베어드에게 한국인들의 연행 방식과 취향을 반영한 선곡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8) 〈신구약성서목록찬송〉  
(Books of the Bible)

19. BOOKS OF THE BIBLE. Music adapted by Mrs. Becker.

第 十九

신구약성서목록찬송

八 장 열 사 권 서 열 두 권  
二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十一, 十二, 十三, 十四, 十五, 十六, 十七, 十八, 十九, 二十, 二十一, 二十二, 二十三, 二十四, 二十五, 二十六, 二十七, 二十八, 二十九, 三十, 三十一, 三十二, 三十三, 三十四, 三十五, 三十六, 三十七, 三十八, 三十九, 四十, 四十一, 四十二, 四十三, 四十四, 四十五, 四十六, 四十七, 四十八, 四十九, 五十, 五十一, 五十二, 五十三, 五十四, 五十五, 五十六, 五十七, 五十八, 五十九, 六十, 六十一, 六十二, 六十三, 六十四, 六十五, 六十六, 六十七, 六十八, 六十九, 七十, 七十一, 七十二, 七十三, 七十四, 七十五, 七十六, 七十七, 七十八, 七十九, 八十, 八十一, 八十二, 八十三, 八十四, 八十五, 八十六, 八十七, 八十八, 八十九, 九十, 九十一, 九十二, 九十三, 九十四, 九十五, 九十六, 九十七, 九十八, 九十九, 一百

四十五

(그림 9) 〈철도창가〉

鐵道唱歌 (五集) 多梅雅作曲

1. 2. 3. 3. 2. 1. 1. 6. 5. 0. |  
 1-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鐵道唱歌

둘째, 4, 7 반음을 노래하지 못하는 한국인들의 연행 특징을 고려한 방법 중 하나는 전통음악의 선율을 차용하거나 “펜타토닉 음계로 이루어진 중국어 찬송가”를 활용하는 것이었다.<sup>30)</sup> ‘한국적인 것’은 동양적인 것과 다르지 않다는 선교사들의 이해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노아 때 홍수>(Song of the Flood), <농부가>(Farm Song), <배 떠나간다>(Boat Song) 등이 그 예

29) 學部編纂, 『普通教育唱歌集』(京城: 韓國政府印刷局, 1910).

30) 安愛理, 『창가집』(京城: 平壤: 耶蘇教書館, 1915), 영문서문.

에 속한다. 세 곡 모두 4, 7음이 없는 5음으로 선율이 구성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한국 민요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배 떠나간다>(Boat Song)<sup>31)</sup> 이외에도 중국 멜로디와 불교음악 선율을 사용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동양적인 음색(Oriental voice)을 얻기 위해 중국 찬송가를 사용하였다는 점은 서문에도 명시한 내용이다. 류대영은 19세기 말 서구 문물의 도입과 관련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던 시기였음을 밝히고 있는데, 중국의 찬송가는 한국 선교 초기부터 좋은 자료가 되어 왔다는 점에서 가장 손쉬운 선택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sup>32)</sup>

(그림 10) <노아 때 홍수> (Song of the Flood)

44. SONG OF THE FLOOD. Chinese Melody, adapted by Mrs. Baird.

第四十四  
노아 때 홍수

一 후렴 어 운 귀 은 조 음 혼 더 나 쓰 회 다 망  
후렴 어 운 귀 은 조 음 혼 더 나 쓰 회 다 망  
지 닷 눈 파 더 밧 빗 음 소 사 락 술 방 창 방 파 철 종 철 에  
호 드 리 무 니 철 일 흥 후 석 호 비 승 문 다.

31) 이 곡에 대한 분석은 필자의 줄고 “‘문명’의 노래, 조선인을 ‘위한’ 음악교육: 1910년대 선교사가 만든 『창가집』 분석,” 『이화음악논집』 17/2 (2013)에서 밝힌 바 있다.

32) 류대영, 『한국 근현대사와 기독교』 (서울: 푸른역사, 2009), 19.

한편, 불교음악의 차용은 타종교에 대한 배타성이 매우 컸던 보수적 성향의 선교사들의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다. 선교사들 상당수가 교회음악의 위대성에 대해 공감하고 종교적인 가사만이 아닌 음악 자체가 가진 힘에 대해 인정하는 분위기였다.<sup>33)</sup> 이런 분위기 탓에 타종교 음악의 차용은 매우 위협하거나 신선해 보이기까지 하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애니 베어드는 『창가집』 편찬과 동시에 <농부가>(Farm Song)를 『코리아미션필드』에 소개하기도 하였다. 당시 상당수의 선율이 가사만 바뀌 두루 활용되었던 상황을 감안할 때, 애니 베어드를 비롯한 『창가집』 편집에 동참했던 선교사들이 5음 음계적 선율을 확보하고자 전통적인 불교음악의 선율을 활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1) <농부가>(Farm Song)

42. FARM SONG. Hallelujah Melody, adapted by Mrs. Baird.

상배주신우러나라편편옥로어아년가

第 四 十 二 節

농훈어는빛을갈고농수리는눈을부니

농산곡어어아년가열날날삼소서

33) 『코리아미션필드』(1915년 4월호, 1938년 4월호 등 음악특집호)에 나타난 음악과 관련된 언급을 통해, 선교사들이 교회음악이 가진 전통과 영향력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음악을 배우려하기 보다 서양음악을 교육하는 것과 그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에 교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한국에서 음악 선교사로 오랫동안 활약했던 말스베리(D. R. Malsbary, 1899-1977)는 한국의 전통적인 종교와 관련된 음악을 사탄의 음악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셋째, 기존의 찬송가를 분석해 4, 7음이 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찬송가 선율을 활용하였다. 찬송가는 선교 초기부터 음악교육의 중요한 재료로 활용되어왔다. 최초의 4성부 악보판인 『찬양가』(1894)를 시작으로 감리교의 『찬미가』(1892), 장로교의 『찬성시』(1895), 성공회의 『성회송가』(1903), 성결교의 『복음가』(1907) 등 다양한 버전의 찬송가가 편찬되어 교회학교와 미션스쿨을 중심으로 중요한 한글 및 음악 교재로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기독교 교리를 전달하는 매체로 역할 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대부분의 근대 초기 서양식의 곡조는 찬송가에서 빌려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학교 창가를 위해 찬송가의 선율을 활용하는 것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창가집』 선곡에 관여했던 감리교 선교사 그로브는 1909년에 발간된 악보판 『찬송가』를 분석하여 (1) 반음이 없는 곡, (2) 반음이 있으나 중요하지 않은 노래, (3) 5음 선율로 편곡이나 개작이 가능한 곡, (4) 한국인들에게 맞지 않아 배제되어야 할 노래 등으로 나누기도 했다.<sup>34)</sup> 이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해당되는 찬송들, 즉 가운데 반음이 없거나 반음이 있어도 무시할만한 수준의 선율들이 『창가집』에 활용되었다. 찬송가를 활용한 노래들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34) Paul L. Grove, "Adequate Song-Book," *The Korea Mission Field* 11/4 (1915), 110-113.

[표 5] 『찬가집』에 차용된 찬송가

| 『찬가집』 수록곡            | 원곡 (현행 찬송가) <sup>35)</sup> |
|----------------------|----------------------------|
| 6. 자장자장              | 〈복의 근원 강림하사〉 (28장)         |
| 7. 아이재우는 노래          | 〈주여 복을 비옵나니〉 (61장)         |
| 10. 식목가              | 〈새벽부터 우리〉 (260장)           |
| 15. 이별가              | 〈생전에 우리가〉 (280장)           |
| 18. 믿는 자 중 열 가지 모를 것 | 성공회 찬송가 〈저 태양이 빛나는〉        |
| 24. 선생의 공덕           | 〈하나님의 나팔소리〉 (168장)         |
| 26. 숭실학교교가           | 〈마귀들과 싸울지라〉 (388장)         |
| 28. 한영서원가            | 〈우리들의 싸울 것은〉 (393장)        |
| 38. 본국 생각            | 성공회 찬송가 〈주님 크신 사랑으로〉       |

넷째, 원곡을 편곡하여 의도적으로 반음을 없앤 경우도 눈에 띈다. 물론 <삼위를 찬송함>(Old Hundred) 한 곡에 불과하지만, 다른 찬송가에서 볼 수 없는 의미 있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파’와 ‘시’를 ‘솔’과 ‘라’로 표기하여 의도적으로 5음만으로 구성된 곡으로 편곡하였는데, 이는 그로브가 『찬송가』를 분석하여 제안했던 내용과 관련이 있다. 그로브는 『찬송가』 수록곡 267곡 가운데 23편의 찬송을 5음 음계식 곡으로 개작하거나 편곡이 가능한 곡으로 분류하였으며, <삼위를 찬송함>은 그 가운데 한 곡이었다.<sup>36)</sup> 악보 하단에는 대다수의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부르고 있는 실제 선율에 가깝게 4, 7 반음을 없애는 방향으로 편곡하였음을 밝히고 있다.<sup>37)</sup> 한국인들의 연행방식에 대한 매우 적극적인 대응에 속하는 것으로

35) 원곡은 이해가 쉽도록 현행 찬송가로 대체했다.

36) Paul L. Grove, “Adequate Song-Books.” *The Korea Mission Field* 11/4 (1915), 112.

37) “This rearrangement leaves out all half-steps, and in melody resembles that already used by the majority of our Korean Christians. The harmonization necessarily differ from that of the original tune.”

이 이후에는 이런 방식의 변형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러한 시도가 적었던 것은 서양음악을 한국식으로 고쳐 부르는 것에 대한 비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sup>38)</sup> 이 곡의 존재는 그로브의 곡 분석이 『창가집』의 편집자였던 애니 베어드와도 공유되었으며 그녀 또한 이러한 시도에 적극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2) 〈삼위를 찬송함〉(Old Hundred)

10. OLD HUNDRED. Adapted to Korean, by Rev. P. L. Grose.

만 복 의 근 원 하 는 님 온 빙 성

찬 송 드 리 그 더 련 소 여 찬

송 송 세 찬 송 성 부 성 조 성 신

第十  
삼위를 찬송함  
십

『창가집』의 가사를 살펴보면, 제목이 영어와 한글 이중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모든 가사는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으며, 애니 베어드가 관여했던 만큼 번역이 매우 매끄러워 내용을 이해하기가 대체로 자연스럽다. 서문을 통해 한국인 최자경이 삽화뿐 아니라 가사 교열 작업에도 도움을 주었다고

38) “악단선구자에 찬가,” 『매일신보』, 1941. 11. 27.

밝히고 있어 가사 이해를 위해 세심한 교정의 과정을 거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은 한국의 일상과 환경이 녹아난 결과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처마 끝’, ‘이부자리’ 등의 일상적인 낱말에서 ‘녹음 방초(綠陰芳草)’, ‘고진감래(苦盡甘來)’ 등의 한자말에 이르기까지 깊이 있는 한국어의 이해를 보여주고 있어 한국 학생들의 이해와 학습에 용이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sup>39)</sup>

#### 4. 애니 베어드의 음악활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지금까지 살펴본 애니 베어드의 선교활동은 한글 교재 편찬 및 교육, 다양한 교재의 번역과 출판, 찬송가의 번안과 창작, 음악 교재의 편집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트럼이 매우 폭넓었음을 보여준다. 여성사업, 문서사업, 교육사업 등에서 매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근대 선교 4대 분야 가운데 의료사업을 제외하고 세 분야에서 눈에 띄는 공을 세운 것으로 평가받기도 한다.<sup>40)</sup>

특히 오랜 기간 한문으로 전개되었던 엘리트 위주의 교육을 넘어 한글을 활용한 대중 교육의 가능성을 일찍부터 간파한 점, 그러한 동기로 『동물학』, 『식물도설』, 『동국통감』 등 다양한 교재를 번역하여 한국 학생들의 이해를 쉽게 하였다는 점은 전형적인 서구식 교육을 지향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한국어에 대한 깊은 이해와 능숙한 실력은 한국인의 정서를 이해하는 찬송가 번역을 가능하게 했을 뿐 아니라, 한국인의 음악 언어를 고려한 음악 교재의 편찬을 견인했다. 이러한 견지에서 애니 베어드의 음악활동은 토착

39) 김사랑, “대한 여성선교사들의 음악활동과 청각적 근대화: 1885-1940년까지 미북 장로교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17), 136.

40) 옥성득, “평양의 어머니 애니 베어드 부인 사망 100주기에 부쳐,” 『뉴스앤조이』, 2016. 6. 8.

화의 시도로 볼 수 있다. 음악적 토착화의 시도가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애니 베어드가 속해 있던 미북장로교 선교회가 채택한 토착화 선교 정책인 네비우스 전략(Nevius Plan)과 관련이 있다. 종교와 관련해서 ‘토착화’는 상황화(contextualization) 혹은 문화화(enculturation)와 관련된 문제로, 현지의 토착 종교와 문화적 상황에서 기독교를 어떻게 해석, 적용, 수용하도록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당시 선교사들에게 큰 이슈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고민이 공유되던 차에 중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 네비우스(John Livingston Nevius, 1829-1893)는 1890년 한국 방문 당시 토착적 교회설립을 위한 이론을 제시하였고, 한국에서 활동하던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서북지역의 리더였던 애니 베어드와 남편 베어드는 자립(self-supporting), 자치(self-governing), 자전(self-propagating)을 원리로 하는 네비우스 선교 방법론에 따라 현지 리더를 양성하여 한국인을 통한 기독교 학교·교회 교육을 지향하였고 각종 교재를 한국어로 번역 및 출판하여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교육하고자 했다.<sup>41)</sup> 당시 감리교 소속 학교였던 이화, 배제 등이 영어 교육에 방점을 두고 있었던 것과는 대비되는 정책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학비를 학생들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일자리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도 하여 학교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자 하였다.<sup>42)</sup>

둘째, 좀 더 근본적인 이유로써 음악적 토착화는 한국문화에 대한 애니 베어드의 깊은 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녀가 저술한 소설들은 한국문화에 대한 애니 베어드의 이해의 폭과 깊이가 어떠한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애니 베어드는 소설과 여러 저서들을 통해

41) 류대영, “윌리엄 베어드의 교육사업,” 『한국기독교와 역사』 32 (2010), 133.

42) 숭실학교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도했던 대표적인 학교로 ‘자조사업부(自助事業部)’를 설치하여 방과 후에 노동을 하고 그 수입으로 수업료를 내도록 했다. 류대영, “윌리엄 베어드의 교육사업,” 『한국기독교와 역사』 32 (2010), 151-152.

한국여성들이 당하고 있는 억압들을 매우 세심하게 묘사했을뿐 아니라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드러냈다. 남아선호사상, 여성의 차별대우 문제뿐 아니라 교육 부재의 문제와 현세적 복을 강조하는 무속 신앙, 조상 숭배와 풍수지리 사상, 조혼 풍습 등 당시의 다양한 한국 문화들을 매우 세심하게 묘사하고 있다.<sup>43)</sup> 사랑방을 개방하여 늘 한국인들로 붐볐던 애니 베어드의 자택은 다양한 일반인들이 드나드는 공간이었으며,<sup>44)</sup> 이들과의 소통은 한국을 깊이 이해하는 중요한 통로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셋째,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이러한 깊은 이해는 애니 베어드 개인이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배려하려는 ‘문화적 감수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본다. 애니 베어드는 한국어 교재인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50가지 도움들』에서 초임 선교사들을 위해 한국인들을 대하는 몇 가지 팁을 제안하였다. 그 제안 내용은 전반적으로 한국문화와 풍습에 대한 성급한 평가를 유보하고 예의와 체면을 중시하는 한국인들을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려는 태도를 강조한다. 그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인들을 상대할 때 말과 태도뿐 아니라 얼굴 표정에서도 모든 조바심이나 짜증을 드러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중략] 만약 참지 못하고 화를 내버린다면 그간의 진심과 기도의 수고는 수포로 돌아가 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숙고해 볼 만한 지점이기도 한데, 앵글로 색슨에게 정직성과 솔직함이란 과연 무엇인지, 한국인들에게 인내와 관용, 공손함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중략]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결코 진실과 강직함은 과소 평가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최소한, 많은 서구인에게 더 이상 매력적으로 여겨지지 않는 형제애나 온유, 인내, 절제와 같은 덕목들에

43) 민대홍, “기독교의 문화변혁으로 본 애니 베어드의 소설연구,” 석사학위논문 (승실대학교, 2011), 33.

44) 이를 두고 ‘사랑방 사역’이라고 일컫기도 했으며 부산과 대구 시절에도 주변 한국인들과의 교류를 지속하였다. 사적으로 남녀학생들과 시간을 보냈던 애니 베어드는 평양에서 ‘한국 천 명의 어머니’라 불리기도 했다.

[선교사들 또한]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sup>45)</sup>

위의 글에서 애니 베어드는 자신들과 한국인들 사이에 우선시하고 있는 가치가 다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특히 서구사회에서의 ‘정직’과 ‘솔직함’만큼이나 한국사회에서의 ‘관용’과 ‘공손함’이 중요하며, 따라서 한국인들과의 조화를 위해 그들의 가치를 존중할 것을 강조한다. 이 외에도 애니 베어드는 구체적인 한국인들의 예절과 가치를 존중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한국에 들어온 지 6년 만에 출판한 책에서 이러한 태도를 드러낸 애니 베어드의 ‘문화적 감수성’은 토착화를 이끈 하나의 동력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서양음악의 한국적 토착화를 시도했던 애니 베어드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 또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애니 베어드의 음악관련 사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음악 자체에 대해 관심을 갖기보다 한국 음악언어를 고려한 서양식 음악교육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인들의 특성과 문화를 존중하는 방식을 고심했으나, 서양음악 교육이라는 큰 흐름에서는 벗어나 있지 않았다. 19세기 중후반 미국의 선교부는 18세기와 달리 복음 전도

---

45) Annie L. Baird, *Fifty helps: for the beginner in the use of the Korean language*. (Yokohama: Fukuin Printing, 1911), 99. “Learn early in dealing with Koreans to efface as much as possible all traces of impatience or irritation from the face as well as words and bearing. (...) If at such times he gives vent to his natural feelings in a burst of angry impatience, he will undo much earnest and prayerful effort, for, and this is a point well worth considering, what truthfulness and honesty are to the Anglo-Saxon, patience, forbearance and courteous bearing are to the Korean. (...) In this connection it is suggestive to note that while the Old and New Testaments by no means underestimate the importance of truth and uprightness, yet at least as much stress is laid upon brotherly love, meekness, patience, self-control and kindred virtues which perhaps are not so fashionable nowadays in the push and stress of Western life.”

이외에도 병원을 통한 치료와 보건교육, 학교 교육을 통한 ‘계몽화’에 경도되어 있었다. 부모님이 선교에 열정을 갖고 관여하였을뿐 아니라 대학 시절부터 교회 선교부와 YWCA 등에서 간사로 일했던 애니 베어드는 누구보다도 이러한 전반적인 선교의 트렌드를 잘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한국음악 자체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애니 베어드의 보수성 과도 맞닿아 있는 지점이다. 애니와 윌리엄 베어드 부부는 당시 일본의 비기독교적이고 세속적인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미션 스쿨의 세속화에 크게 우려를 표하곤 했다.<sup>46)</sup> 이는 서울 지부의 언더우드나 감리교 선교사들과 갈등을 초래한 원인이기도 했는데, 베어드는 기독교 리더 양성에 방점을 둔 교육을 지향한 반면 언더우드나 감리교 선교부는 세속적인 교육 자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sup>47)</sup> 일제강점기 총독부가 내린 ‘종교교육금지령’과 ‘신사참배’ 문제로 인해 송실, 송의 등 북장로교 측 학교 등이 정부 인가를 받지 못하고 후에 결국 폐교를 선택하기도 한 이유이기도 했다. 이러한 강한 종교적 신념과 보수성은 이교도의 음악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기독교 음악인 서양식 음악교육에 천착한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 5. 나가며

애니 베어드의 다양한 활동은 문서, 교육, 여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두드러졌는데, 특히 언어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는 음악언어의 이해로 전이되어 음악교육의 중요한 지표를 남기는데 이르렀다. 서양음악이 뿌리내리는데 중요한 지류였던 선교사들의 초기 한국근대서양음악교육이 한국의 문화적 이해를 토대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된다는

46) 류대영, “윌리엄 베어드의 교육사업,” 『한국기독교와 역사』 32 (2010), 130.

47) 이성전, 『미국 선교사와 한국 근대교육: 미션스쿨의 설립과 일제하의 갈등』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7), 138-148.

점에서 유의미하다.

위와 같은 애니 베어드의 활약은 그 영향력 또한 적지 않았다. 이는 당시 한국사회의 상황과 맞물려 나타난 결과이다. 애니 베어드가 한국에서 활약했던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는 한국 선교 초기이자 부흥기에 해당한다. 1910년 이전까지 열강의 침략에 시달리던 국민들의 울분은 근대화에 대한 열망으로 바뀌어 교회와 미션 스쿨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결과적으로 기독교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애니 베어드의 다양한 활동은 기독교의 영향력에 크게 비례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부흥되는 만큼 애니 베어드 개인의 역량도 높이 평가되어 1910년 뉴욕에서 열린 선교대회에 두 번에 걸쳐 연자로 나서기도 했으며, 애니 베어드가 남긴 『선교생활 내부의 모습들』(Inside Views of Mission, 1913)은 당시 후배 선교사들에게 지침서로 활용되기도 했다.<sup>48)</sup>

물론 애니 베어드의 찬송가 번역과 『창가집』의 편찬은 기독교의 전파를 전제로 한 서양식 음악교육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에서 당시의 세계선교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적인 정서를 담은 섬세한 번역과 한국인들의 연행방식을 고려한 5음 음계식 선율의 선곡은 다른 선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진 음악교육에서 보기 힘든 시도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들과 근거리에서 다양하게 소통하고 배우려 한 애니 베어드의 태도와 한국인의 가치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려 했던 문화적 감수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48) 박보경, “애니 베어드의 삶과 선교 사역에 대한 고찰,” 『장신논단』 49/4 (2017), 290.

## 참고문헌

### 1차 자료

- 學部編纂. 『普通教育唱歌集』. 京城: 韓國政府印刷局, 1910.
- 安愛理. 『창가집』. 京城: 耶蘇教書館, 1915.
- \_\_\_\_\_. 『萬國痛鑑』. 京城: 耶蘇教書館, 1911.
- “악단선구자에 찬가.” 『매일신보』. 1941. 11. 27.
- 애니 베어드 / 유정순 옮김. 『따라 따라 예수 따라가네: 벽안의 선교사가 만난 조선 사람 이야기』. 서울: 디모데, 2007.
- Baird, Annie L. A. *Daybreak in Korea: A Tale of Transformation in the Far East*.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09.
- \_\_\_\_\_. *Fifty helps: for the beginner in the use of the Korean language*. Yokohama: Fukuin Printing, 1911.
- \_\_\_\_\_. *Insider Views of Mission Life*. Philadelphia: Westminster, 1913.
- \_\_\_\_\_. “Are We Satisfied?” *The Korea Mission Field* 8/5 (1912), 130-133.
- \_\_\_\_\_. “Higher Education of Women in Korea.” *The Korea Mission Field* 8/4 (1912), 113-115.
- \_\_\_\_\_. “Schedule and Notice of Language Class.” *The Korea Mission Field* 9/3 (1913), 55.
- \_\_\_\_\_. “The Coming Song Book.” *The Korea Mission Field* 10/3 (1914), 80.
- \_\_\_\_\_. “The Future of Unmoon.” *The Korea Mission Field* 6/8 (1910), 204-206.
- BOOK REVIEW. “Book of Songs for Social and Occasions.” *The Korea Mission Field* 11/4 (1915), 119.
- Gary, A. L. 『식물도설』. translated by Annie L. Baird, Seoul: Korea Religious Tract Society, 1908.
- Grove, Paul L. “Adequate Song-Books.” *The Korea Mission Field* 11/4 (1915), 110-113.
- “Information about Annie Baird copied from the book of data for Korea Mission

History.” Annie Laurie Adams Baird Papers of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1916.

Miller, F. S. “Early Korean Hymnology.” *The Korea Mission Field* 26/9 (1930), 189-190.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 *The Fiftie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 Seoul: YMCA Press, 1934.

## 2차 자료

강선미. “조선 파견 여선교사와 (기독교)여성의 여성주의 의식형성.”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03.

고예진. “애니 베어드(Annie Luaurie Baird)의 저서에 나타난 한국문화 이해양상 고찰.” 『인문과학연구논총』 33 (2012), 9-33.

김사랑. “내한 여성선교사들의 음악활동과 청각적 근대화: 1885-1940년까지 미북장로교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17.

\_\_\_\_\_. “‘문명’의 노래, 조선인을 ‘위한’ 음악교육: 1910년대 선교사가 만든 『창가집』 분석.” 『이화음악논집』 17/2 (2013) 35-64.

류대영. “윌리엄 베어드의 교육사업.” 『한국기독교와 역사』 32 (2010), 127-157.

\_\_\_\_\_. 『한국 근현대사와 기독교』. 서울: 푸른역사, 2009.

문옥배. 『한국 교회음악의 수용사』. 서울: 예술출판사, 2004.

민경찬. 『한국창가의 색인과 해제』.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1997.

민대홍. “기독교의 문화변혁으로 본 애니 베어드의 소설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2011.

박보경. “애니 베어드의 삶과 선교 사역에 대한 고찰.” 『장신논단』 49/4 (2017), 283-306.

베어드, 리처드 / 김인수 옮김. 『배위량 박사의 한국선교』. 서울: 쿤란출판사, 2004.

- 위치, 제임스 / 박동섭 옮김. 『보이스 오브 마인드: 매개된 행위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 서울: 학이시습, 2014.
- 이성전. 『미국 선교사와 한국 근대교육: 미션스쿨의 설립과 일제하의 갈등』.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7.
- 이현주. “보배와 이화: 애니 베어드의 『한국의 새벽』과 윌리엄 노블의 『이화: 한국 이야기』에 나타난 두 여주인공 비교.” 『신학과세계』 62 (2008), 472-505.
- Choi, Hweol. *Gender and Mission Encounters in Korea: New Women, Old Way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9.
- Hopkins, Anna L. *Memorial, Mrs. William M. Baird*. Saint Louis: Woman's Presbyterian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Southwest, n.d.
- Robert, Dana L. *American Women in Mission: A Social History of Their Thought and Practice*. Bacon: Mercer UP, 1996.
- \_\_\_\_\_. *Gospel Bearers, Gender Barriers*. New York: Orbis Books, 2002.
- \_\_\_\_\_. *Christian Mission: How Christianity Became a World Religion*. West Sussex: Wiley-Blackwell, 2009.

**Abstract****Annie Baird's Mission Works and Music Activities**

SaRang Kim

Annie Baird, who worked as an NPCUSA (Northern Presbyterian Church of USA) missionaries in Korea from 1891 to 1916, contributed greatly to the music field in Korea of the modern era. She translated numerous hymns with excellent linguistic and musical talents and was an important committee member for hymn publication in Korea. In addition, she edited and published an occasional songbook *Changgajip* which was compiled various genre included Asian traditional tunes, nursery rhymes, and school songs. *Changgajip* was a widely used textbook and a meaningful collection as a selection and arrangement that took into consideration of Korean's singing characteristics. This presentation focuses on how Annie Baird's perspectives and educational ideas were reflected in her music activities.

Annie Baird began her ministry at a time when the mission movement was in full swing in the United States, and when the women's mission of various denominations, including the Women's Missionary Association, reached its peak. Growing up under a conservative church, Annie Baird was faithful to the mainstream mission perspectives and strategy of the time.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educational missions, she worked with Husband Baird, who founded Soongsil School in Pyeongyang, to translate and edit textbooks, to serve as teachers. She believed that education would be a crucial tool to "enlighten" Korean youth on gospel foundations and to build their talent up. In that sense, her educational activities generally were not far away from the

beneficiary's position. However, if we look at the results of the activities in more detail, we can see that Annie Baird not only contributed greatly to the dissemination of 'Hangul' and the publication of Hangul textbooks but also considered the emotions and customs of Koreans in hymn translation and in songbook compilation. Thus, I suggest that Annie Baird was a beneficiary and a subject of education, at the same time was at a place where she was compelled to make new musical negotiations.

Key Words: Annie L. Baird, Missionary, Modern, Indigenization, Music Education, Hymnal, Song-Book, Changgajip, Cultural Sensitivity,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 투고일           | 심사일                     | 게재 확정일        |
|---------------|-------------------------|---------------|
| 2019년 10월 16일 | 2019년 10월 17일 - 11월 29일 | 2019년 11월 30일 |

DOI 10.34303/mscol.2019.27.2.002